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강원도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을 돌아보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원도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을 돌아보시며 태풍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피해지역 논들을 돌아보시면서 피해복구실태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으시고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당한 농업기술적대책들을 세운 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피해흔적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풍요한 가을을 기약하며 황금빛을 기다리고있는 농장별을 바라보시며 이 농장별에도 우리 군인들의 충성의 구슬땀이 뿌려져있다고, 우리 군인들의 애국충심에 의해 자연재해를 입었던 이곳에도 황금이삭이 설레이는 바다가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침수피해들의 농작물생육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선인민군 공군부대의 직송기와 경수송기들을 동원하도록 조치하시고 농약살포사업을 몸소 조직지휘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의 명령을 받은 조선인민군 제2623군부대 비행사들은 인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지키기 위한 그 어떤 임무에도 언제나 완벽하게 준비되어있는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과 절대사명에 충실할 일념을 안고 즉시 비행임무에 진입하여 해당 침수면적에 대한 농약살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의 명령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받아안고 떨쳐나 무한한 헌신성과 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함으로써 태풍에 의한 피해흔적을 말끔히 가셔내고 논벼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민군군인들에게 감사를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태풍피해가



투쟁기질을 다시한번 남김없이 보여주었다고, 특히 이번에 조선인민군 제2623군부대와 조선인민군 제863군부대, 조선인민군 제974군부대의 해당 전투구분대들이 막강한 자기의 전투적위력을 보여주었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침수피해를 받은 해당 농장들에서 신심을 가지고 농업생산에 적극 열쳐 일어나 지대적특성과 자연기후조건에 맞게 농작물생육후반기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며 올해 농사를 안전하게 결속하기 위한데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뿐만아니라 농업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다시한번 총결기하여 재해성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의 안전한 생육을 보장하기 위한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알심있게 진행함으로써 전국의 그 어느 농장에서나 다수확의 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국가적으로 피해방지대책과 위기대응능력을 더욱 철저히 갖출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특히 농경지와 농작물들이 자연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설물정비보강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자연재해방지능력을 후열조사하고 취약한 고리들을 찾아 신속하고 적시적인 대책을 따라세움으로써 그 어떤 재해성기후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갈수 있게 확고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군대의 애국적인 헌신으로 자기의 새 모습을 드러낸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의 전경을 둘러보시며 자연의 피해를 가셔낸 이 지대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과 행복이 깃들기 바란다고 따듯이 축복해주시었다.

본사기자

발생한 즉시 인민군군인들이 침수피해를 입은 농경지복구에 진입하여 짧은 기간내에 원상복구하는 기적을 창조한데 이어 오늘 또다시 농작물생육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싸움마당에서 용감할뿐만 아니라 당정책관철에도 늘 앞장에 서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나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알곡생산에도 이바지하려는 우리 군인들의 강렬한 정신세계, 이것이 바로 조선인민군이 지니고있는 고유한 체질이며 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고 본분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이 우리 군인들을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조직동원시킨것은 결코 200정보의 피해면적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시면서 싸우는 전선에서 한치의 땅도 적들에게 내어줄수 없듯이 인민생활과 직결된 농업전선에서 단 한평의 땅도 자연의 광란으로부터 빼앗길수 없기에 그 영예로운 임무를 응당

우리 군대에게 맡길것을 결심하였다고, 우리 군대는 인민의 복리를 지키는데서 한치의 양보도 모르는 진정한 인민의 충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군인들로 피해복구전투를 조직한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전선에 또 한번 우리 군인들을 내세움으로써 인민군대특유의 정신력과 전투력을 더욱 발휘시키고 자기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자각하도록 고무추동하기 위한데 있으며 또한 해당 지역 인민들과 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이 군인들의 투쟁분배를 분반야 자기 사는 지역의 소중한 땅을 책임들여 관리하고 잘 가꾸어나가도록 교양각성시키자는데도 있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역시 우리 군대가 당중앙의 명령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결사관철해온 자랑스런 전통대로 자연재해복구사업에서도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를 지켜 혁명군대의 무한한 충실성과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중요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8월 11일과 12일 전술미싸일생산공장을 비롯한 중요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군수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술미싸일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미싸일생산실태와 생산능력보강 및 공장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공장이 최근년간 전술미싸일생산에 힘을 집중할데 대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포치를 받들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완비하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자립화를 실현하였으며 생산능력을 부단히 확장하면서 설비현대화도 힘있게 내밀어 현행군수생산목표를 계획대로 어김없이 집행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공장에서 이미 계획생산되고있는 전술미싸일들을 기동성있게 생산보장하는것과 함께 새로 개발되는 전술미싸일들의 생산공정을 신속히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따라세우고있으며 공장개건현대화를 부단히 실현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공장이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현존미싸일생산능력을 보다 비약적으로 제고함으로써 확대강화된 전선부대들과 미싸일부대들의 편제수요와 작전계획수요에



현대화 및 방사포탄의 생산정상화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리 국방과학연구부문에 방사포탄의 탄도정밀조종화실태를 가장 중차대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힘차게 투쟁한 결과 대성공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122mm와 240mm방사포탄의 조종화를 실현한것은 현대전준비에서 중대한 변화로 되며 최대의 격과효를 담보할수 있게 되는것으로 하여 방사포리용분야에서의 일대 혁명이라고, 새로운 기술이 우리 군대에 도입된 시점에서 이제는 포탄생산에 총결기하여 우리 포병무력의 전투성을 한계단 더 끌어올려야 한다

맞게 대대적으로 생산장비시킴에 대한 중대한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쟁준비의 질적수준은 군수산업발전에 달려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이 우리 군대의 전쟁준비를 다그치는데서 맡고있는 책임이 대단히 막중하다고, 공장에서는 로동계급의 애국적열의를 폭발시켜 전쟁준비를 위한 생산적양양을 일으켜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술미싸일발사대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각이한 발사대차개발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당중앙의 군사전략적기도에 따라 전투마당에서 유력하게 사용되게 될 주요화

력무기대차들의 신속한 개발생산이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시면서 부대장비수요와 리용방안이 확정된데 맞게 질적수준이 우세한 우리식 발사대차생산전투에 총돌입함으로써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계획된 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대차생산에서 다용도화를 실현하는것이 국방과학의 발전추이로 보나 작전환경에서의 효율적측면에서 보나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대차설계를 끊임없이 갱신하고 생산공정현대화에 힘을 집중하여 군대의 전쟁준비완성에 실지 기여할수 있는 현대적이며 성능높은 발사대차들을 더 많이 생산장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투장갑차생산공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다용도전투장갑차개발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공장에서 제2차 장갑차무력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과 전략적기도에 맞게 장갑차생산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새로 개발한 다용도전투장갑차를 직접 물어보시면서 전투적성능과 기동성을 료해보시고 우리식 다용도전투장갑차개발에서 도달하여야 할 기술적제일들과 공장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대구경조종방사포탄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당중앙이 제시한 중요목표수행정형과 생산공정의

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공장이 우리 군대의 포병무력강화에서 노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자, 기술자,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고 기술혁명, 종산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생산공정현대화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 생산정상화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는데 대하여도 평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선부대들의 포병무력강화에서 조종방사포탄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는것이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증가된 군의 작전수요에 맞게 포탄생산에서 장성을 이룩하여 더 많은 포탄들을 전선부대들에 종장배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3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중요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면에서 계속)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대는 임의 시각에 그 어떤 전쟁에도 대처할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확고한 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므로써 적들이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며 만약 접어든다면 반드시 피멸시켜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대의 전쟁준비를 보다 철저히 갖추는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강령적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중요한군수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조국통일, 조국사수를 위한 우리 군대의 전쟁준비완성을 무장장비생산으로 억척같이 담보해야 할 무거운 사명을 다시한번 깊이 자각하며 강력한 전쟁억제력수단들의 무수한 증산성과로 당의 위업에 절대충성할 불라는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강원도 안변군 오계리 일대의 태풍피해현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태풍피해를 입은 강원도 안변군 오계리 일대를 돌아보시며 피해복구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현지에 도착하시여 태풍피해정형을 보고받으시였다. 최근 태풍6호에 의한 폭우와 해일의 영향으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강하천제방이 터지고 200여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태풍피해인 비군사적임무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수 있어야 한다고, 그 어떤 위기속에서도 인민의 생명 안전을 목숨으로 지키는것은 우리 군대의 본분이고 절대사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침수된 농경지를 빠른 시간내에 복구하였으므로 얼마든지 피해후과를 막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최대한 농작물을 보호하고 알곡수확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시급히 영양관리대책을 따라세우는것을 비롯하여 필요한 농업기술적대책들을 세우는데 대하여 지시들을 포치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지만 이곳 일군들은 국가적조치에 둔감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결과 다른 지역들에 비해 많은 피해를 입는 후과를 초래하였다고, 이번 계기에 다시한번 자연재해방지능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체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든 지역, 모든 단위들에서 위험개소들을 빨리 찾아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일속》이 《창해》를 타승한 빨찌산전설

8.15는 일제식민지통치를 끝 짓고 조국을 해방한 날이다.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 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을 망상하던 일본의 패망은 필연이었다. 어느나라의 문필가가 저술한 도서는 이런 대목이 있다. 《일본은 신공군사강국였다. 일본제국주의를 라도 한다는 것은 곧 세계적으로 공인된 일본의 군사력과 그를 안받침하는 경제력, 그들의 광진적인 사무라이정신을 타승한다는 것을 의미

했다. 이런 일본군대가 오랜 세월 많은 희생을 내면서 김일성장군부대토벌에 노력하였지만 이상하게도 토벌할 수 없었다. 토벌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커가는 김일성장군부대, 실로 20세기의 수수께끼에 대한 일본군대가 전멸하고 세계의 군사가들이 놀랐다》 일제가 《20세기의 수수께끼》라고 아우성쳤던 항일대전의 기적적 승리. 김일장과 더불어 전해지는 빨찌산전설을 다시금 되새겨본다.

《신출귀몰》의 《둔갑술》을 쓴다는 일제의 비명소리로 이어졌고 1937년 6월의 보천보전투는 《후두부를 팡하고 강타를 당할것이다》, 《천날동안 베어들인 새초를 한순간에 태워버린듯한 한을 남겼다》는 강점자들의 절망소리를 낳았다. 력사에 고난의 행군으로 기록된 조선인민혁명군의 남파에서부터 북대정까지의 행군시기 일제는 《맹공장추진술》의 기본인 《다시전술》(진지기전술)을 쓰면서 약차스럽게 달려들었으나 유격대의 갈기자전술, 매복전술에 걸려 패전에 패전만을 거듭하였다. 일제가 《역지로 내몰린 토

벌대들은 자다가 얻어맞고 일어나다가 얻어맞고 도망치다가 얻어맞고 매복에 걸리고 하여 모조리 전멸되었다》고 비명을 울리며 《김일성장군부대의 라와에 걸리지 말라》고 강조한 것도 그 시기였다.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막기 위해 저들이 닦아놓은 갑부경비도로 항일빨찌산의 대부대가 대낮에 행군한 것을 두고도 《미증유의 괴사》라고 개탄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장군부대의 립기용변의 지략과 천변만화의 전술, 《신출귀몰》의 전법은 일제에게 있어서 영영히 풀수 없는 《20세기의 수수께끼》속의 《수수께끼》가 아닐수 없었다.

이야기였고 수만군사가 종이 한장으로도 강을 건넜다는 전설은 보천보전투를 위해 조선인민혁명군이 매를 타고 구시물등을 건는 후에 나온 시고 그 많은 바위들로 총알을 만들어주신다. ... 《추지법》, 《번신술》, 《장신술》, 《분신술》을 비롯한 신비한 술법을 지니시고 《승천입지》, 《동성서적》, 《일행천리》로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시는 백두산장수, 술방울도 폭탄을 만드시며 가랑이로 군사를 나르시어 삼도왜적을 쳐부시는 《백두산호랑이》에 대한 가지가지의 전설은 삼천리를 뚝뚝이 하였다. 민족의 전설적영웅에 대한 숭앙과 호모는 구호나 무릎에 새겨진 글밭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백두산에 장수벌 뚫다 백두산 장수벌 삼천리를 비친다》, 《백두산에 추지법 쓰는 장수 내렸다》, 《민족 최고 황일령수 김일성장군부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흔아홉까지 추지법을 쓰시며 왜놈들을 혼비백산케 하신다는 이야기들은 결코 신비나 허황한 이야기 가 아니었다. 백두산중의 깊은 동굴에서 뿔뿔 날아다니는 장수 수만명을 길러냈다는 전설은 조선인민혁명군이 1937년 동강에서 군정훈련을 한 후에 나온

전설이다. 이렇게 항일의 무훈담과 백승의 영웅담들은 《20세기의 수수께끼》를 더욱 신비하게 하였다.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렇게 피력하시었다. 《우리는 곡권도 령도도 자원도 다 빼앗긴 땅의 나라들이다. 지금은 남의 나라 땅에서 결방살이를 하는 적수공권의 정변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주저없이 도전해나섰다. 무엇을 믿고? 인민을 믿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려고 결심하였다. 인민이 국가이고 인민이 후방이며 인민이 정규군이다. 싸움이 시작되면 전민이 병사가 되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벌리게 될 유격전은 인민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을 앞둔 비결이 바로 이 명제에 담겨져 있다. 《토벌》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커가는 김일성장군부대?

면으로 우리를 도와주었다. 우리가 령하 40℃를 오르 내리는 만주의 흑한속에서 15년동안이나 발들까지 무장한 감적과 싸워일기수 있었던 것은 인민이라는 강력한 성체가 있고 인민대중이라는 무한대의 창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항일유격대를 《창해일속》이라고 알보았지만 오산이었다. 일제가 맞선 것은 유격대만이 아니라 위대한 주석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조선민족이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겉허하게 항일전의 승리의 요인을 인민의 힘이라고 피력하시었지만 그 뒤에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이었다. 사랑하는 겨레, 인민이 땅과노의 신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주석님, 《무장에는 무장대로!》라는 항일전의 호호를 제시하시고 20대에 해방성전의 무장력을 조직하시고 총사령관으로 나서신 민족의 구세주, 신출귀몰하고 령할 무쌍한 전법과 전술로 일제의 100만관동군을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성업을 이룩하신 전설적영웅!

《창해》를 뒤엎은 《일속》

19세기말, 20세기초의 조선은 너무도 힘이 없는 약소국이였다. 1905년에 이르러 일본의 병력은 20만명, 6000이상의 최신군함도 12척이었지만 그에 비해 조선군대의 병력은 서울과 지방을 합하여 고작 7000명정도였다고 하니 포악한 강도의 무리에게 국권을 강탈당하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할수 있었다.

창일, 로일전쟁으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고 대륙침략의 광기에 들떠있던 일제에게 있어서 수십년 이 지난 후 맞선 항일유격대는 《창해일속》, 넓은 바다속의 한알의 쯤쌀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전쟁을 선포하실 때 만일 인민유격대는 100여명에 불과했지만 일제의 관동군은 100만명에 비행기와 탱크를 비롯한 신식장비들로 무장되어 있었으니 《창해일속》이라는 말은 과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 《일속》에 《창해》가 뒤집어졌다. 항일유격대를 《완전소멸》하기 위해 《토벌》에 나선 일제놈들이 러친 비명소리로써 일제의 약탈성과 함께 군국주의의 취악성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만주땅에서의 나의 근무활동은 추억하기조차 괴로운 체험을 무적시켰다. 김일성유격대의 존재

는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그 아픔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에 와서 총화해보건대 《항군》이 추구한 《공비수첩》은 분명히 어려운 오유였다. ...본인은 출세욕의 총공과 적의감에 괴를 겪으며 유격대토벌에 용전분투했으나 추위는 매번 패하였다. 눈우에 적혀있던 발자국이 돌연 사라진듯한 것, 강을 건너는 것은 뻔한데 강건너 언덕에는 아무 흔적도 없으니 하늘도 토벌하러 왔는지 땅속에 갓아들었는지 정말 풀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어느해인가 부후물에서 ... 그들의 피이한 전법에 걸려들어 제련기러 맞출질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수직감에 소름이 돋는다. 일본군의 병사나 용병술에는 그런 전법이 없었다. 이것은 항일유격대에 대한 《토벌》에 나섰다가 패전의 고배를 든 어느한 《토벌대》 장교가 회상록에 쓴 글의 일부이다.

1936년 조선인민혁명군이 무공원정시기 소덕수 등판에서 쓴 망원전술은 유격대가 《승천입지》,

수수께끼를 더해진 빨찌산전설

일본복군의 《꽃》이라고 하던 100만관동군이 항일빨찌산의 신묘한 전법과 전술에 만신창이가 되었고 때 우 리 민족은 백두산전설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조국해방에 대한 희망과 신심에 넘쳐있었다. 백두산에 유난히도 빛나는 장군별이 솟아올라 우주천지를 휘황히 비치고있다. 하늘

이 년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산천지의 맑은 물로 목을 추기시고 장군바위에 오르시어 거룩하신 손을 높이 드시니 천지에 굳게 달렸던 돌문들이 열리고 그속에서 총천 병사들이 하늘땅을 뒤 흔들며 왜적격멸에 나섰다. 그리게는 백두중령의 울창한 원시림으로 총을 버시어 빨찌산대원들에게 메워주

서

이

이

이



이제는 이를 불가사의한 것으로, 수수께끼라고 머리를 긁어다졌지만 이에 대한 해답도 위대한 주석님의 불후의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적들은 우리를 《창해일속》이라고 하였지만 우리의 뒤에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인민의 바다가 있었다. 우리가 무슨 로선 내 놓기만 하면 인민들은 그것을 쉽게 리해하고 자기것으로 만들었으며 우리 위대한 기적과 승리, 신화만을 창조해 온 본사기자 김정 령

조국해방 78 둘을 뜻깊게 경축

우리 겨레의 운명에서 극적 전환을 가져다준 조국해방의 날을 온 나라 인민이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찬란한 인민의 나라, 강대한 공화국의 불멸의 명성과 위상을 누리며 떨치며 주체조선의 자랑찬 역사를 영광과 존엄, 번영의 백년대기로 이어가는 끝없는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이 경축마다에 넘쳐왔다.

조국해방의 날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그리움의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태양의 성지를 찾은 군중들은 자주, 자력의 기치밑에 민족해방투쟁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시고 공화국이 사회주의 한길을 따라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귀중한 전통과 재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돌이켜보며 절세위인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수대었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태양상,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아 군중들은 경모의 정 어린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를 진정하였다.

또한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기공을 본받아 백두의 행군길을 곳곳이 이어갈 일념 안고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각지에서 국가계양식이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의 장중한 선율속에 창공높이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를 숭엄하게 바라보는 공화국인민들의 얼굴마다에는 성실한 맘과 노력으로 부강조국건설에 동참케 이바지해갈 애국열의가 력력히 어 렷었다.

또한 지방도, 합격북도, 합경남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호환회로운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었다.

청년학생들의 웅변모임이 개천문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격동적이고 호소성이 강한 웅변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를 다시금 깊이 새겨들었다. 남포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청년들은 반마라톤, 배구, 바둑당기기를 비롯한 체육경기들을 진행하였다.

국가에 온정속에 마련된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평양과 전국각지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에서도 명절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는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의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명절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며 각지에서 청년들과 녀맹원들의 무도회가 진행되었다. 청년들과 녀맹원들은 무도회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깊이 되새기며 경모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갈 드높은 열의를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조국해방의 날을 뜻깊게 경축하며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학생들은 경모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인, 강국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며 자주로 존엄높고 자력으로 부강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불같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를 다시금 깊이 새겨들었다. 남포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청년들은 반마라톤, 배구, 바둑당기기를 비롯한 체육경기들을 진행하였다.

국가에 온정속에 마련된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평양과 전국각지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에서도 명절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는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의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명절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며 각지에서 청년들과 녀맹원들의 무도회가 진행되었다. 청년들과 녀맹원들은 무도회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깊이 되새기며 경모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갈 드높은 열의를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조국해방의 날을 뜻깊게 경축하며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학생들은 경모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인, 강국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며 자주로 존엄높고 자력으로 부강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불같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강국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만세의 환호성

만세! 만세라는 이 말을 통해 세계에 빛을 뿌리는 강국의 오늘을 떠올리며 온 겨레가 다시금 새겨안은 철리가 있다. 그것은 절세위인을 모시는 민족의 존엄과 영예, 영광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7일 공화국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세계에 있어본적 없고 누구도 흉내조차 낼수 없는 독특하고 환호한 최고의 전승추진, 그 뜻깊은 경축의 밤 이 땅의 인민들 누구나 격정과 흥분에 넘쳐 목청껏 만세를 웨치고있었다. 《진승 70돐 만세!》 《강대한 우리 조국 만세!》

《만고절세의 령장 위대한 김정은동지 만세! 만세!》 세인이 우러르는 초대강국의 인민이라는 자부,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에 산다는 무한한 긍지.

반만년민족사에 오늘처럼 인민의 존엄과 영예가 최상의 경지에 떨쳐진적은 없었다. 돌이켜보면 강도 일제가 들이쳐온 총포리채 빼앗겼던 수난의 세월 우리 겨레가 피터치기 웨쳤던 《조선독립 만세!》였다. 그 만세의 처절한 웨침 속에는 외세의 노예로 걸 단코 살지 않으려는 독립자주의 강렬한 열망, 자주적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누리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그것이 그대로 3.1인민봉기, 6.10만세시위투쟁의 대중적항거로 터져올랐고 우리 민족의 거세찬 반일 투쟁은 일제를 전멸케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력을 보낸것이다. ...조선동포가 가장 숭모하고 고대하던 영웅 김일성장군께서

《...각 계급이 망라한 민족소요는 1919년 3월 1일의 독립선언서발표와 함께 각지에서 일제히 일어나 로 일의 불길과 같이 전 조선에 퍼져 꺼질줄 모르는 상태에 빠졌나 무단적관압에 의하여 겨우 진압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민족 운동에서 한 전환기를 주고 있는 것으로서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며 소요하였으므로 일명 《만세》 혹은 《만세소요사건》이라고 불리우고있다.》

독립만세를 목청껏 웨쳤건만 나라의 독립은 오지 않았다. 이것이 빈주먹뿐이었던 인민, 어제의 약소민족이 당해야 했던 쓰라린 비극이었다.

독립만세의 절규가 산천 초목을 뒤흔들던 이 땅에 해방의 만세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20성상의 영웅적인 항일투쟁으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를 찾아주시는 그때였다.

지금으로부터 78년전 《평양만세》는 민족의 영웅 위대한 김일성장군의 조국건설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광경을 《금수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전하였다.

《평양의 역사가 깊어 4천년, 인구가 적지 않아 40만이라고 하나니 일제기 모와 같이도 많은 사람이 모여 인일이 있었는가? 이와 같이도 뜻깊은 모임을 가져 본 일이 있었는가? ...특히 대회를 역사적으로 뜻깊게 하고 회중을 감동케 한것은 조선의 위대한 애국자, 평양이 낳은 영웅 김일성장군이 여기에 참석하여 민중에게 반갑고도 열렬한 인사와 격려를 보낸것이다. ...조선동포가 가장 숭모하고 고대하던 영웅 김일성장군께서

그 림들한 용자를 한번 나타내니 장내는 열광적환호로 승막힐듯 되고 거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때문에 소리를 낼수 없을였다.》

격정의 불꽃이 끝없이 솟아치는 환희의 마당에서 울려 퍼진 천지를 진감하는 만세의 환호성은 절성판에 울랐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절세의 영웅, 해방의 은인께 드리는 인민의 다함없는 칭송과 고마움의 인사였다.

해방의 만세소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으로 난생처음 땅의 주인, 공방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된 이 나라의 인민들이 터치는 《토지개혁 만세!》, 《산업국유화 만세!》, 《남녀평등 만세!》로 이어졌다. 새 조선의 당당한 주인이 된 어제의 머슴꾼, 소작농, 막달이군, 부녀녀들은 행복의 세상을 빼앗겼고 달려든 침략자들의 결과항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용감히 싸웠다.

전하의 그 나날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웨치며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쳤던가. 그들속에는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염을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연 18살의 청년도 있었고 불붙는 비행기동체와 함께 한몸이 그대로 유탄이 되어 적함선에 돌입한 용사도 있었다.

인간의 참다운 삶을 안겨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고향과 부모 처자, 조국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진승의 기적을 안아온 영웅인민은 전승의 초포가 터져오르던 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리며 목청껏 《김일성장군 만세!》

를 웨치고 웨치며 따르는 길에 승리가 있다는것을 역척불변의 신념으로 간직 한 공화국인민들은 조국건설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고난의 행군, 강군공시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만세!》를 부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다졌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한분의 만고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세!》를 웨치면서 부흥강국의 지평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은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최악의 극한속에서도 행성의 중심에 우뚝 솟아올라 찬연한 빛을 뿌리는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지켜주는 원수님의 애국헌신과 로고의 결정체라는것을.

인민은 수령님의 길만 걸게 하고 자신의 고생길은 절대로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하고 하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우에 강대한 국력의 실체들이 마련되지 않았던가.

그렇다. 만세의 웨침에 비친 민족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은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셔야 민족의 존엄도 영예도, 후손대대의 행복도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민족사에 새겨주고있다.

천제적인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당대한 배짱과 응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인민이 터치는 기쁨과 환희의 만세소리, 승리의 만세소리는 날로 무궁무진하게 주체조선의 모습과 함께 세세년년 끝없이 울려 퍼질 것이다.

오 향 속





삼천리를 진감한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지금도 70여년전 이 나라 강산을 진감하던 우렁찬 노래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 것만 같다.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기발 높이어 삼천만은 나셨다 산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격을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얼마나 갈망하던 자주독립 국가인가.

노래에도 있는 것처럼 온 겨레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진폭적으로 지지하였고 공화국을 자기들의 진정한 국가로 받아들여 주었다.

돌이켜보면 해방후 반일항전에서 축적되고 양성된 민족의 거대한 힘은 뜨거운 건국열의로 달아올랐다. 새 나라를 일떠세우려는 온 겨레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고 도처에서는 인민들 자신의 창의를 위해 인민위원회들이 속속 출현하였다.

하지만 《해방지》의 칼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에 의하여 조선반도에는 민족분열의 비운이 짙어졌다.

미제는 남조선에 기여들어 인민위원회를 강제해산하고 군정을 설치하였으며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요구와 애국적 진출을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한편 어제의 친일주구들을 친미분자로 전락시켜 자들의 식민주의적 타수를 이루고 삼기 위해 광분하였다.

해방후 남조선의 현실은 우리 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자주적인 독립국을 이루기 위하여 앞장서서 건설할 과업을 제기하고 있었다.

해방후 조국에 개입하여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진보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적 자주독립국을 건설할 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천 의지를 가다듬었다.

현을 위한 투쟁을 즐기게 이끄셨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건을 환영하는 역사적인 평양시 환영군중대회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의 조선민족이 민주주의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을 합칠 때는 왔다. 고, 각계각층 인민들은 누구나 애국적열성을 발휘하여 새 조선건설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임하여야 하며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건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 자주독립국을 건설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연설을 받들고 공화국북반부에서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와 함께 정견과 신앙이 다른 남조선의 애국적인사들도 만나시어 통일적중앙정부 수립의 필요성과 그 과업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우리는 민족이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 건설에 떨쳐나서도록 하시었다.

주제34(1945)년 11월 민족운동자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그 다음해 2월에는 조선인민당 위원장 리운형과 하신 나라에 조성된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 힘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새 조선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미군의 방조로 새 나라를 건설하려 한다면 자주독립국을 건설할 수 없을뿐 아니라 또다시 망국노의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하고 자기의 힘으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로선과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북과 남의 삼천리 방방곡곡에서는 통일적민주주의 자주독립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전체 조선민족의 이 앙양된 건국기세에 질감한 미제는 유엔을 내세워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강행시킬 것을 선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 37(1948)년 5월 초 속속에서 진행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급인사들의 협의에서 단독선거와 통일적민주주의 자주독립국을 위한 방도와 그 전망에 대하여 하나하나 명백히 가르쳐 주시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은 5.10단선반대회와 썬미랑군현수를 위한 남북련석회의결정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투쟁을 벌여 나갔다.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의 5.10단선반대투쟁으로 단독선거는 사실상 파탄되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미국과 그 앞잡이들은 《단독정부》 수립놀음을 벌여놓았다.

조선된 정세는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조선지역에서는 먼저 유권자들이 비밀리에 서명의 방법으로 인민대표들을 선거하고 그 인민대표들이 해주를 모여 대표자대회를 열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더더 1948년 8월 해주에서는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천한 1080명의 인민대표들이 참가해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남조선지역 대의원을 선거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가 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해주에까지 나오시어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시고 전 조선최고주권기관과 통일적중앙정부 수립이 가지는 중요성과 대외에서 선거된 대의원들이 앞으로 창설되는 자주독립국의 대의원으로서는 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었다.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는 360명의 대의원을 선거하

도록 되어있다.

엔제하면 정사에 관여해본적이 없고 뒷방아주머니로만 살아온 민중이었던 주인의 주인,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지금도 해방된 조국땅에서 인민을 정권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첫 민주선거가 진행되던 날날 하 계층 인민이 터치던 격정의 목소리들이 들려오는 듯했다.

《...우리들은 모두가 일제와 그 주구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가혹한 착취와 학대를 받았으나만큼 한결같이 근로인민들을 중심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의를 옹호하는 무기로서의 인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기난한 목수가 어느 뜰에 정성껏 밭어두었던 널판자에 인민위원회의 명칭을 써서 높이 달았을 때 사람들은 환성을 터쳤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부인네도 어린이들도 모두 둘러앉아 매일로 닦쳐온 선거의 이야기요, 우리의 후보자 김일성장군의 이야기이다.》

우리 겨레는 오랜 세월 이 땅 위에서 살면서도 정치의 대상으로 되어왔다.

한 집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열정에 넘쳐신 역사적인 연설 《인민혁명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의 구절구절은 오늘날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있다.

인민혁명정부는 어느 임금이 다스리는 정권이 아니라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서 인민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정권입니다. 이 정부는 지주나 자본가나 어느 개인의 리익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인민정치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가. 이들이 한말을 차지 못하는 것도 과연 당연하다 할 것이다. 《...》

우리 겨레는 오랜 세월 이 땅 위에서 살면서도 정치의 대상으로 되어왔다.

한 집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열정에 넘쳐신 역사적인 연설 《인민혁명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의 구절구절은 오늘날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있다.

인민혁명정부는 어느 임금이 다스리는 정권이 아니라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서 인민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정권입니다. 이 정부는 지주나 자본가나 어느 개인의 리익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인민정치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가. 이들이 한말을 차지 못하는 것도 과연 당연하다 할 것이다. 《...》

우리 겨레는 오랜 세월 이 땅 위에서 살면서도 정치의 대상으로 되어왔다.

한 집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열정에 넘쳐신 역사적인 연설 《인민혁명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의 구절구절은 오늘날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있다.

《작년 11월 3일 승리의 새 아침을 기다리는 가을밤은 유난히 긴 것 같다.》

제6호선거구 제52호분구인 모범선거장 북조선전직총국마당에는 이른아침부터 공민들, 투표줄을 쥐고 정각 7시를 기다리는 긴 행렬이 있었다. 이 분구라는 우리 인민의 영명한 령도자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고귀한 향표를 내시게 되는 기쁨에 가득찬

《나도 새 조선의 주인이다!》
— 첫 민주선거가 진행되던 날에 —

제52호분구였다. 이날을 회상하여 한 선거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투표가 시작되어 진행중인 오전 10시에 갑자기 장내에서 터져오르는 《김일성장군 만세!》 소리가 뒤이어 만면에 웃음을 띠운 김일성주석님께서 나타나시었다. 그 순간에 감개무량하였습니다.

공민중을 내놓으시면서 《투표하러 왔소.》라고 하시던 그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새 조선에서의 첫 민주선거에 참가하였으니 인민의 환희와 기쁨은 끝이 없었다.

본사기자 주 일 통

본사기자 김 철 진

참으로 전체 조선민족의 총의에 떠받들려 창건된 공화국은 진정한 전조선적인 통일적중앙정부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적중앙정부의 첫 국가수반으로 높이 모신 그날의 감격을 당시의 《로동신문》은 이렇게 전하였다.

《김일성장군께서 수상으로 선임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

우리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상 김일성장군께서 등단하시니 만장은 총기립하여 우렁찬 오랜 박수로 환영하였다. ...》

김일성장군을 통일정부수반으로 받들려는 조선인민들의 속마음은 실현되었다.

공화국인민들은 새 조선의 탄생을 경축하는 뜻깊은 경축식위에서 자주독립국의 창건자인 김일성장군님을 우리러 목청껏 만세 부르고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기발 높이어 삼천만은 나셨다고 노래하면서 모두당당히 행진하였다.

이것은 지난날 약소민족의 비참한 운명을 감수하여야만 하였던 우리 겨레에게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세우시고 존엄높고 힘있는 위대한 인민으로 자랑될지겨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감사의 분출이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9.9절을 맞을 때마다 먼저 우리 수령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고, 이날은 공화국창건을 선포한 날이라는 의미에 심도나 우리 수령님을 자주독립국의 첫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할 날이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절절히 고시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도써 이 땅의 인민들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따라 존엄있는 자주독립 국가의 당당한 주인이라는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용기백배하여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즐기게, 힘있게 걸어올 수 있었다.

본사기자 주 일 통

본사기자 김 철 진

애국인사들의 학품에 안아주시여

한지맥, 한피줄을 이은 나라와 민족이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진 비극을 끝장내려는 뜨거운 애국심이 넘쳐나서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새겨안으며 홍명희선생은 그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나가는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

국가기를 계양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실로 온 겨레의 총의에 의해 세워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전체 조선민족의 참다운 조국이다.

본사기자 손 지 성

본사기자 손 지 성



인민이 안겨사는 위대한 어머니품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인민의 당,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존재방식으로 하고있는 위대한 어머니당이다.

격변하는 국제정치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도 끄떡없이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가는 조선로동당의 힘은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있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혁명을 백승으로 향도 하여온 긍지높은 력사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인민대중과 한명어리가 되어 투쟁하는 참다운 령도적정치조직으로 건설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붉은 기폭에 인민의 모습을 아로새긴 때부터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성공적으로 개척해올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인위천의 사상과 인민적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혁명 그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전환시키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시어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리상사회건설의 억년기틀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높이 모셔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신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인민의 권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든 사색과 실천의 출발적기초로 되고있으며 그의 령도실록은 인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결사단,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의 서사시로 아로새겨지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참다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반만년 민족사에 일제치 않았던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펼쳐주고 인민의 행복과 밝은 미래를 꽃피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인민생활향상을 총적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자연재해를 입은 인민들을 위해 당중앙위원회가 펼쳐나가고 국가의 인적, 물질적자력을 피해복구사업에 총집중한다. 심각한 보건위기에 처한 인민들의 무병무탈을 위해 모든것을 다해온것은 진정한 인민을 위하는 조선로동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중첩되는 격난을 이겨내며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대규모농장농장을 일떠세우고 농촌진흥의 새로운 력사를 펼쳐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인민들은 슬하의 모든 자식들을 한몸에 안고 정성다해 보살피는 위대한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어머니당, 바로 여기에 조

선로동당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하는것이 집대성되어있다. 인민들에게 온갖 사랑을 기울이고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는 진정한 인민의 당이 되려는 조선로동당의 목표, 인민을 위해 그 어떤 천만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당이 되려는 조선로동당의 신조는 억척불변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지만 공화국의 인민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조선로동당을 끝없이 신뢰하며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높이 추켜들고나가는 조선로동당은 눈도 비도 다 막아주고 운명도 미래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게 될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홍은주

자연의 맛과 향기, 대단한 호평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을 찾아서

공화국의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맛있는 아이스크림들이 즐겨 찾는 아이스크림과 다양한 건강음료들을 더 맛있게 즐기기 위해

천연원료를 리용한 독특한 맛과 향기, 영양학적성분으로 하여 이 공장 제품들에 대한 인기는 날이 올라가고있다.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속에서 대단한 호평을 모으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환경과 수질이 좋은 대성산기슭의 명당자리에 자리잡고있는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을 찾았다.

이곳 공장에서는 10여종에 수십여가지의 다양한 아이스크림과 단물, 탄산단물, 우유제품 등을 생산하고있다.

우리와 만난 공장의 김혜경지배인은 《우리 공장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성에 의하여 일떠선 현대적인 아이스크림생산기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몇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아이스크림과 다양한 건강음료들을 더 맛있게 즐기기 위해

천연원료를 리용한 독특한 맛과 향기, 영양학적성분으로 하여 이 공장 제품들에 대한 인기는 날이 올라가고있다.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속에서 대단한 호평을 모으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환경과 수질이 좋은 대성산기슭의 명당자리에 자리잡고있는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을 찾았다.

우리와 만난 공장의 김혜경지배인은 《우리 공장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성에 의하여 일떠선 현대적인 아이스크림생산기지입니다.》

술준비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과 음료들을 맛본 사람들 누구나 지난 시기 아이스크림과 음료에 비해 그 맛과 질이 새롭고 독특하다고 좋아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생산현장들에서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딸기초콜레타이아이스크림, 초콜레트감귤송아이스크림을 비롯한 갖가지 고품질아이스크림들도 생산되고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꿀단물, 망고단물, 복숭아단물, 짬뽕이단물, 리치단물과 사과탄산단물, 꿀탄산단물 그리고 바나나우유, 커피우유, 종합과일우유, 파이내플우유 등 여러가지 음료들도 생산하고있다.

특히 고품질아이스크림은 품질이 높은 천연원료를 기본으로 하고있어 맛이 진하고 영양성분함량도 높아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다고 한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니 공장구내에서는 출하된 제품들을 실은 차들이 시

의 봉사망들로 떠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종류의 아이스크림들과 음료들은 평양의 봉사망들뿐 아니라 지방들에도 출하되고있다.

우리가 찾은 모란봉구역에 위치한 대성산상점 서홍분점을 비롯하여 평양 시내 곳곳에 위치한 청량음료매대들은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에서 생산되는 아이스크림과 음료들을 맛보러 찾아오는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한곳에서 만난 신은주녀성은 《우리 아이들은 대성산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일같이 딸에의 성화를 바란다고 웃으며 말했다.

곳곳의 봉사망들에서 갖가지 아이스크림을 맛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온몸으로 느끼었다.

은 나라에 퍼져가는 아이스크림의 향기, 날이 윤택해지는 생활의 향기를.

본사기자 김진혁



생산에 앞서 갖추어진 로동보호시설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 실적마다 생산에 앞서 로동자들의 로동조건과 환경부터 로해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한없이 고매한 인민적품성에 대한 이야기는 현지지도의 나날에 수없이 꽃피었다.

주체37(1948)년 6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성군 요업공장을 현지지도하시 때였다.

지배인의 안내로 공장을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금 무슨 제품을 만들며 생산은 제대로 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지금 밤사발과 국사발만 만들고있는데 매달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고 자랑스럽게 울리는 지배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료작업장에 이르시어 그곳을 만드는데 쓰이는 흙을 쥐어보시었다.

그러시고는 원료는 좋은데 기계설비가 낙후하다니 생산능률이 높지 못하고 로동자들이 힘들게 일하고있다고 걱정하시었다.

밤급 매달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다고 자랑을 하던 지배인은 그만 얼굴이 뜨거워졌다.

생산계획수행보다 거기에 들어있는 로동자들의 힘든 일부터 헤아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앞에서 자기의 처신이 부끄러웠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료작업장을 둘러보시며 지배인에게 로동보호시설도 잘 갖

추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작업장이 몹시 어두운데 이렇게 컴컴한데서 일하는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조명장치를 잘 해주어야 하겠다고 이르시었다.

사실 원료작업장은 일제때 지은 낡은 건물이어서 햇빛이 들지 않고 어둡컴컴하였지만 해방된지 몇년이 되도록 조명 하나 대책하지 않고있었다.

생산일면에만 치우치면서 로동자들의 로동조건과 환경에 무관심한 공장일군들의 그릇된 일본색을 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 본놈들은 로동보호시설이 전혀 없는데서 로동자들이 가혹하게 일을 시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불구자로 만

들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지 않다고 타이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상에 제일 귀중한것이 사람인데 로동자들을 이렇게 어둡컴컴한데서 일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로동보호시설을 잘 갖추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당부를 받아들인 지배인은 로동자들에 대한 그릇된 판점은 말 못하는 승일의 속마음까지 깊이 헤아려 그를 바이올린제작에 망라시키고 연주방법도 배우주면서 바이올린들을 활로 그를 때나타는 진동을 통하여 음감을 느끼도록 사심없는 방조를 주었다.

평범한 로동자의 아들인 장애자의 희망을 꽃피워주기 위해 이토록 뜨거운 사랑과 정을 기울인 고마운 사람들의 도움속에 그가 만든 첫 바이올린은 제9차 평양악기전시회에서 기술상을 수여받았으며 그로부터 두해가 지나 또다시 과학기술우수상을 수여받았던것이다.

일반적으로 청력장애자들은 정상사람들과의 대화를 글로 한다. 과학기술상을 수여받던 그날 승일은 자기가 쓰는 수첩장에 이렇게 한자 한자 적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수백, 수천번도 더 쓴 글이었다.
비록 한마디이지만 여기에는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서로 돕고 위해 주는 아름다운 덕과 정이 차넘치는 헌정이 고마운 사회주의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뜨겁게 어려 있었다.

이것을 어찌 그 한사람의

서로 다른 두 올림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와 《도와주세요!》 이 말속에 판이한 두 현실, 사랑과 정으로 맺어있는 공화국과 극단한 개인주의와 인간중심으로 움직이고 어두운 남조선사회의 서로 다른 두 모습이 비껴있다.
몇몇 젊은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속에 열린 제10차 평양악기전시회에서 그는 훌륭한 바이올린에 과학기술우수상을 수여하였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그 바이올린의 제작자인 김승일이 청력장애자라는 사실이

청력장애자인 그가 과연 어떻게 이처럼 섬세한 현악기중의 하나인 바이올린을 제작할수 있던 말인가.
여기에가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었다.
김승일은 태어나서부터 청력장애자라는 진단을 받은 몸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나라의 혜택속에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예술소조원이 되어 화려한 공연무대에서 무용을 했고 조선장애자기능공학교(당시)에 입학하여 기술을 배웠다.
남달리 손재간이 좋았던 승일의 꿈은 자기 손으로 한

번 멋진 악기를 만들어 고마운 조국의 사랑과 기대에 보답하는것이였다.
승일이 기능공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장애자예술협회 로동자로 일하던 어느날 그는 협회에서 바이올린을 제작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일군들에게 자기도 바이올린제작에 참가하겠다고 청원하고싶었지만 듣지도 못하는데 뛰어난 음감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바이올린제작자가 어떻게 될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는 몇몇이고 망설

심정이라고한 하라. 오늘 공화국에서는 김승일과 같은 장애자들이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우월한 장애인자보호정책에 의하여 가슴속에 단 한점의 그늘도 없이 긍지높고 보람찬 생활을 누려가고있다.

공화국에는 장애자들의 건강강화와 사회활동, 문화정서생활을 위한 기관인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와 그 산하에 조선통인협회, 조선장애자협회, 조선장애인협회, 조선장애자후원회,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조선장애자예술협회를 비롯한 여러 조직들과 관련기관들이 있으며 이 단체들의 활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장애자보호법》에 의해 적극 보장되고있다.

이런 국가적관심과 보살핌속에 공화국의 장애자들은 생의 활력과 회열에 넘쳐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다. 성공의 단상에서 축하의 꽃다발을 받을 때마다 그들모두가 행복에 겨워 하나같이 하는 말도 역시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이다.
《도와주세요!》
이것은 오늘 극단한 개인리기주의가 지배하고 황금만능,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남조선사회에서 장애자들이 늘 입버릇처럼 외우는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받는것은



어떤 도움이나 동정이나 아니라 사회적평등과 멸시뿐이다.
장애자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하여 온전한 일자리도 없이 인간이하의 천대와 조롱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불안과 고통, 절망속에 연명해가고있는것이 남조선장애자들의 비참한 삶이다.
남조선에서 장애자들의 거의 모두가 실업자가 되어 삶의 막바지에서 헤매고 있다. 그리고 낯서 직업을 얻었다고 해도 낮은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로동조건

에서 힘들고 고되게 일하고 있다.
올해 남조선의 여론조사기관이 장애자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만 놓고보아도 장애자들은 대중교통수단과 공공건물, 봉사시설들을 리용할 때 심하게 차별당하고있다고 한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목이 쉬도록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외면당하고 도리어 갖은 학대와 차별을 당하는 남조선에서 장애자들은 비인간적인 사회를 저주하며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지난해에도 서울시 성동구에서 6살 난 장애자아들을 안고 그의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60대여성 30대의 장애자아들을 살해하고 그자신도 자살시도를 하였다.
사회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장애자들이 왜 이런 비극적생명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정이 말라버린 사회, 개인주의가치관이 지배하는 남조선사회가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전쟁광 윤석열은 퇴진하라!》

남조선 전 지역에서 전쟁반대, 미군철수, 윤석열역도퇴진을 위한 투쟁 강화

남조선에서 핵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는 미국과 이에 편승하여 조선반도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윤석열역도를 퇴진시키기 위한 각계층의 투쟁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7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된 《평화행동》은 14일 서울의 통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연습중단, 미군철수, 윤석열역도퇴진을 요구하며 핵전쟁을 막을것을 호소하였다.

《평화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역대 최대규모의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또다시 강화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선제 공격》과 《체제전복》, 《평양점령》을 노린 《작전계획》에 따른 전쟁연습이다. 《을지 자유의 방패》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전쟁위기는 지역내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지역과 나아가 전 세계로 확대될수 밖에 없다. 조선반도를 화

약고로 만드는 전쟁연습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민중의 단합된 힘으로 전쟁연습을 막고 평화화를 지켜내자고 강조하였다.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의 통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군사정부》의 해

체를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 나선 발언자들은 미국이 《유엔군사정부》라는 명칭을 도용하여 쓰고있다.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유엔군사정부》를 해체할대 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하지만 미군은 지금도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에 주둔해있으면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짜유엔군사정부 해체하라!》, 《윤석열은 유엔군사정부해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매도에서 《유엔군사정부》를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로총》도 지난 15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쟁반대, 미군철

수, 윤석열역도퇴진을 요구하여 끝까지 싸울것을 선언하였다.

한편 남조선언론들은 《핵전쟁의 화약고로 만들 《을지 자유의 방패》 당장 중단해야》, 《위험천만한 무력시위의 끝은 재앙일뿐》 등의 표제의 기사에서 《북선 제타격》의 개념이 담긴 《작

전계획》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예정되면서 각계층이 불안해하고있다고 밝히고 핵전쟁을 막는 길은 전쟁연습중단, 미군철수, 윤석열퇴진에 있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치욕의 연설》, 《위험천만한 전쟁선언나발》, 《진보개혁세력들에 대한 선전포고》

지난 8월 15일 윤석열역도가 《광복절경축사》라는것을 통해 반공화국대결약당과 친미, 친일망발을 채치낸것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역도의 《광복절경축사》는 반공화국적대외의식과 복침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위험천만한 대결연설》이라고 강하게 단죄하고있다.

그러면서 윤석열역도의 망발은 《담대한 구상이 아닌 담대한 대결을 강조하였다》, 《극히 위험한 대결연설이었다》고 주장하고있다.

윤석열역도가 남조선미국일본사이의 군사협력을 또다시 떠드는데 대해서도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위험한 발언》, 《조선반도의 평화를 더욱 로인하게 하는것》, 《전쟁발발을 기정사실화하는것》이라고 단죄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역도가 일본에 과거죄악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할 대신 안보와 경제의 협력대상이라고 추켜세웠다고 하면서 《윤석열의 문지마시 친일립장이 그대로 드러났다》, 《광복절이 굴복일이 되었다》, 《광복절경축사가 아니라 치욕의 연설》, 《최악의 광복절경축사》라고 비난하고있다.

또한 《윤석열의 집권후 통산청사에 일장기가 게양될가봐 걱정하였는데 더 충격적인 나발을 불어냈다》, 《치가 떨린다》, 《윤석열을 잘못 뽑은것때문에 민족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는 현실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 《과국적인 후과를 몰아올수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강화방향을 당장 저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윤석열역도의 《광복절경축사》에 대해 《검찰독재, 폭압정치를 반대하는 진보개혁세력들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경축사가 아니라 리념대결선동문이다》, 《인권과 진보정치적의 역사를 유리하는 패륜적언사이다》, 《주민들을 적어로 갈라놓고 상대를 심멸해야 한다고 주장한 21세기의 심적한 반공선전이다》고 강하게 규탄하는 목소리도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층속에서 그칠새없이 터져나오고있다.

한편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윤석열역도의 《광복절경축사》에 대한 각계층 시민들의 비난과 규탄, 항거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있다고 하면서 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적투쟁이 앞으로 더욱 거세차게 벌어질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우리는 국민을 배신한 <정권> 을 심판한 경험과 힘이 있다》, 《참사 <정권>, 재난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라!》

남조선에서 반민적약정과 친일굴욕외교에 매달리고있는 윤석열역도에 대한 각계층의 분노가 날로 배가되고있다.

12일 서울에서는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가 주최한 《윤석열정권퇴진 2차범국민대회》가 열리었다.

대회에서 《민주로총》 위원장은 《윤석열은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건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끝내 양회동렬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철저하게 민생을 외면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해온 윤석열 <정권>은 자적

이 없다》고 성토했었다.

《전국여성노동회총연합》의 장은 《곡물전쟁과 기후위기심화로 식량주권을 지켜야 하는 와중에 윤 <정권>은 수입농산물을 패더 많이 들여오겠다고 한다. 이는 농민을 죽이는것을 넘어 우리 국민을 죽이는 일》이라고 규탄하였다.

《민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는 《가사비, 전기세에 이어 교통비까지 인상되는 마당에 윤 <정권>은 세수위기에 떠들면서 재벌부자감세정책만 강화하고있다. 로점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사

는 도시민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고 토로하였다.

집회에 참가한 《전국여성노동회》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한데 이어 공동돌봄기관에산속으로 여성장시간노동을 강요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권>의 여성정책은 여성을 임신, 출산, 양육을 담당하는 존재로 전락시켰다》고 규탄하였다.

《한국청년연대》 대표도 《윤석열은 청년목돈마련지원과 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창출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일에 발린 <청년을

위한 공정> 운운은 끔찍하기조차 하다》고 절규하였다.

일본의 후쿠시마핵오염수방류를 대하는 역적매당의 친일굴욕적인 태도에 대한 각계층의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도 더욱 커가고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한 집회에 이 《정의당》 대표는 《후쿠시마핵오염수가 공식적으로 바다에 투기된다면 이제 바다생태계는 전 세계 인자력, 방사성물질로 오염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진보당》 대표도 2017년 박근혜역도를 탄핵한 초보투쟁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국민을 배신한 <정권>을 심판한 경험과 힘이 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고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가운데 야당들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시민사회, 종교계와 함께 17일 유엔인권리사회에 후쿠시마핵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여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다같이 떨어지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도란속에 아우성치는 민생에는 아랑곳없이 싸움질에만 미쳐들어가고있는 혐오스러운 정치인들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환멸의 분출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의 여야당들은 민생경제악화와 폭우피해, 국제행사파탄 등 정책실패와 사회적혼란을 놓고 서로 물고뜯는 싸움질만을 일삼고있다.

세계청소년야영대회파탄문제를 놓고 여야당들이 벌리고있는 패거리싸움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원래 윤석열역적매당은 이번 야영대회를 저들의 인기를 올리는 주요계기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대회참가자들은 나무 한그루 없는 간척지에서 낮에는 무더

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습기와 모기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였으며 음료수마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폼팡이가 낀 음식이 공급되고 위생실과 샤워실도 더럽고 한심하여 생지옥같은 곳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밖에도 일본의 후쿠시마핵오염수 해양방류문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활동의 조기종결문제를 놓고서도 여야사이의 물론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내부에서도 분점과 란투국이 그칠새없이 벌어지고있다.

악화된 민생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 추악한 정치적야망만을 추구하며 싸움질로 허송하는 이런 정치시정배들에게 민심이 침을 뱉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외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국민의 힘》것들은 이번 대회가 이권 《정부》부터 준비되었으니 그들의 책임이라고 고이대고있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참사를 빚어냈다고 맞서면서 아귀다툼만 벌이고있다.

이밖에도 일본의 후쿠시마핵오염수 해양방류문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활동의 조기종결문제를 놓고서도 여야사이의 물론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내부에서도 분점과 란투국이 그칠새없이 벌어지고있다.

악화된 민생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 추악한 정치적야망만을 추구하며 싸움질로 허송하는 이런 정치시정배들에게 민심이 침을 뱉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파쇼독재의 망령이 부활한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가 검찰을 독재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역도는 검찰의 《독립성》을 떠들어대며 이전 《정권》시기 마련된 《검찰개혁안》들인 《검찰청법개정안》, 《형사소송법개정안》 등의 효력을 차단하고 검찰의 수사권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의 주요요직들에 자기의 측근들을 대대적으로 임명하고 검찰조직을 확대개편하고있으며 이전 《정권》이 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있다.

검찰권력을 휘둘러 파쇼독재시대를 되살리고 정치적배과들과 진보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

며 일가족속들의 부정부패행위를 무마시키려는 단말마적발악이 아닐수 없다.

다 아는것처럼 지금 남조선에서는 윤석열역도의 친미친일사대매국행위와 반공화국적대결책동, 파쇼와 반민적약정을 반대배격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날로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전쟁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대일굴욕외교로 나라를 팔아먹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생파탄 못살겠다, 윤석열 퇴진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의 남조선민심이다.

야당들과 지어 보수세력내에서도 윤석열역도의 강권과 전횡, 독선과 독주, 사회적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망언과 망동, 무지무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그칠새없

이 터져나오고있다.

이런 속에 역도의 너넨네가 주민들이 폭우피해로 아우성치고있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에서 명품상점들을 들락거린 사실들이 폭로되고 서울-양양고속도로로선이 처가속속들이 소유한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된 《권력형부정부패의혹》이 터져나왔으며 역도의 장모년이 사기협잡죄로 구속됨으로써 역도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윤석열역도는 최악의 통치위기에 직면해있다.

이에 급해맞은 윤석열역도는 검찰을 독재통치실현의 물격대로 내세워 자주와 민주, 평화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진보세력과 각계층 그리고 자에게 반기를 드는 정치적배과파들을 《한국가세력》,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주

스와 피담으로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몰아 탄압하려 하고있다.

이런 기도로부터 검찰권력을 확대하고 검찰의 주요요직들에 측근검사들을 들여앉히는 등 자기의 통치지반을 다지기 위해 퍼는 이 되어 날뛰고있는것이다.

《시대착오적인 검찰공화국완성기도》, 《파쇼독재망명의 부활》, 《시대착오적인 검찰공화국완성기도》, 《로골적인 정치보복》이라고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파쇼독재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

파쇼독재강화에서 살길을 찾는 윤석열역도의 운명도 달리될수 없다.

본사기자 김혜성